

# 인연찾기의 담론구조와 액자미학

— 「메밀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

안 성 수\*

## 목 차

- I. 서 론
- II. 인연담의 조직원리와 기법
- III. 인연담의 서사전략과 기법미학
- IV. 인연찾기의 운명적 욕망구조
- V. 인연의 힘과 상상력의 작용
- VI. 결 론

## I. 서 론

「메밀꽃 필 무렵」은 可山 이효석이 1936년 10월 <朝光> 12호에 발표한 그의 대표적 단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그동안 연구자들로부터 한국 현대 단편소설의 한 때어난 봉우리라는 보편적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으로서 이미 그 미학적 평가 또한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sup>1)</sup>

그렇다면, 이 소설은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중후한 평가를 받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내린 평가의 근거는 무엇이며, 또 정당

---

\* 국어교육과 교수

1) 유종호 편저, 이효석(서울: 지학사, 1985), p. 194. 필자는 이 책의 31-39페이지에 수록된 작품을 텍스트로 삼았다.

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구조미학적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학적이고 미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 소설 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의 독서계에 자신있게 알릴 수 있으리라 믿어마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메밀꽃 필 무렵』의 구조미학적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학계나 평단에서 거의 논의된 바 없는, 그래서 이 소설이 절묘하게 숨기고 있는 운명의 액자구조와 그 미학적 특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해석해 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 소설이 지니고 있는 미덕은 운명적 이별과 만남이라는 전통적 소재를 한국인의 시골 서정과 시적 분위기에 실어 간결한 문체로 완벽하게 형상화시킨 작품이라는 점에서 찾아왔다. 물론, 작중인물 '동이'의 왼손잡이가 유전적 요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리얼리티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은 20년 전에 스치듯 이루어진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와의 하룻밤 通情사건을 내부액자로 설정한 뒤, 그것을 20년 후의 외부 이야기에 삼입하여 이른바 운명적인 인연담으로 결부시켜 놓은 것은 이 소설만의 탁월한 매력이다.

게다가, 초여름의 달빛이 강물처럼 흐르는 메밀꽃밭의 낭만적 이미지의 울림을 이용하여 이별의 인연 이야기와 만남의 인연 이야기를 상동구조로 형상화한 것도 이 소설만이 지니고 있는 구조미학적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해석의 정체를 구조주의와 기호학, 심리학과 현상학 등의 방법을 원용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보기로 하겠다.

## Ⅱ. 인연담의 조직원리와 기법

### 1. 의미망의 요약

우선, 텍스트의 이야기 조직 원리와 기법을 살펴보기 위해 의미망을 분절하여 요약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겠다. 이 소설의 의미망은 크게 17개

의 단락으로 요약하여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다. 문장마다 작중인물의 섬세한 감정과 심리의 흐름이 실려 있어서 의미작용을 요약해 내기가 매우 까다로운 작품에 속한다. 이제 요약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허생원은 조선달에게 여름장의 과시를 재촉한다.
2. 허생원은 동이가 충주집을 꼬였다는 말을 듣고 그를 책망하여 내쫓는다.
3. 허생원은 온순한 동이에게 측은함을 느끼며 자신의 욕심을 누우친다.
4. 얼마후 동이가 들어와 난리치는 나귀 소식을 전하자 그는 동이의 마음씨에 감동한다.
5. 허생원은 반평생을 함께 한 늙은 나귀가 암새 내는 것을 보고 낮이 뜨거워진다.
6. 허생원은 20년 동안 장돌뱅이를 하며 계집과 인연이 없는 것을 슬퍼한다.
7. 허생원은 오늘밤도 산길을 가며 단 하룻밤의 괴이한 인연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 7-1. 나는 봉평장날 밤 모밀꽃 핀 개울가 물방앗간에서 성씨 처녀를 만난다.
  - 7-2. 나는 집안이 망해 울고 있는 처녀와 통정한 후 다음날 제천으로 달아난다.
  - 7-3. 나는 다음 장도막에 제천 장판을 뒤겼으나 처녀는 간 곳이 없다.
8. 허생원은 옛처녀를 만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걸겠다고 말한다.
9. 큰 길로 접어들자 허생원과 동이는 충주집 일에 대하여 화해한다.
10. 동이는 아비 없는 아이를 낳고 쫓겨난 어머니와 자신의 출생비밀을 고백한다.
11. 허생원은 고개를 넘으면서 동이 같은 젊은이를 부러워 한다.
12. 허생원은 개울을 건너며 동이가 의붓아비의 폭력으로 장돌뱅이가 된 내력과 동이 모친의 친절이 봉평임을 알아낸다.
13. 허생원은 동이 모친의 친절이 봉평이라는 말과 아비의 성을 모른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실족하여 떠내려 가는 것을 동이가 업어서 구출한다.
14. 허생원은 제천의 동이 모친이 의붓아비와 헤어진 뒤, 늘 생부를 한번 만나고 싶어한다는 소식과 가을쯤 봉평으로 모셔올 생각이란 말이 뼈에 사무친다.
15. 허생원은 조선달에게 새끼를 얻은 늙은 나귀를 생각하다 실족했다고 돌려

낸다.

16. 허생원은 대화장 후의 제천행에 동이의 동행을 요청한다.
17. 허생원은 동이가 왼손잡이임을 발견하고 발걸음이 가변다.

이상의 요약내용을 因緣談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여 시퀀스로 묶어보면, 이 소설은 <Ⅰ. 인연의 발원조짐(1-) → Ⅱ. 인연의 발생(7-8) → Ⅲ. 인연의 확인조짐(9-13) → Ⅳ. 인연의 확인(14-15) → Ⅴ. 인연의 재회소망(16-17)>의 순서로 플롯라인을 추출할 수 있다. 여기서 인연의 발생 부분은 액자층(內話)을 이루고 그 밖의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층(外話)을 구축하여 한국의 근대소설에서는 비교적 보기 드문 内部類子 소설을 형성한다.<sup>2)</sup>

『메밀꽃 필 무렵』의 특이한 액자구조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지만, 한 마디로 이 소설은 20년 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 전에 맺은 인연 이야기를 원인 모티프로 활용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별과 만남의 원리는 이 소설의 서사구조를 지탱하는 두 축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제 앞에서 요약한 소설의 의미망의 조직상황을 플롯체계도로 정리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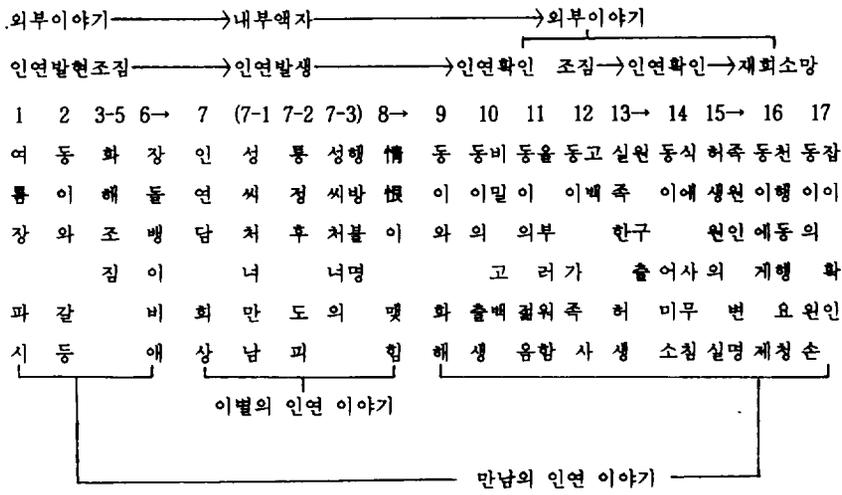
## 2. 인연담의 플롯 체계

지금까지 요약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의미망의 실상은 플롯체계도의 작성을 통해서 가시적인 형태로 떠오른다. 따라서 『메밀꽃 필 무렵』의 플롯체계도는 적어도 이 소설이 운명적인 이별과 만남의 사건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 예컨대, 이 소설은 「인연발원조짐→인연발생→인연확인조짐→인연확인→재회소망」의 다섯 단계로 조직된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견고하게 구축된 인연담의 플롯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인연담은 단순한 이야기 구조가 아닌 특수한 액자구조를 통해서 미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일반적으로, 액자소설은 外話의 층위에 액자가 장치되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內話의 층위에 액자가 삽입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내부액자로 명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액자소설은 외부 이야기의 층에 액자가 장치되고 내부 이야기의 층에 목격담이나 증언담 등이 내포되는 형태를 보여준다. 이에 비하여, 이 소설은 내부의 체험담 부분이 내부액자의 구실을 하고 외부 이야기가 내부의 액자를 포괄하는 전도된 형태를 보여준다.



이 플롯체계도에 따르면, 「메밀꽃 필 무렵」은 '이별의 인연 이야기'와 '만남의 인연 이야기'가 액자구조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된다. 이때, 액자 이야기에 해당되는 '이별의 인연 이야기'는 '만남의 인연 이야기' 속에 내포된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외부액자가 아니라, 내부액자로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왜 외부액자가 아니라, 내부액자의 형태를 사용하여 인연담을 조직했는가라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 의미심장한 작가의 창조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제 텍스트의 구조 속에 숨겨져 있는 각종 기법을 찾아내어 작가의 숨은 미학적 의도를 해석해 낼 필요가 있다.

시퀀스의 차원에서, 숨은 기법을 찾아내어 그 미학성을 해석하는 작업은 앞서 추출된 플롯라인의 이야기 배열방식과 그것을 다시 환원시켜 재구성해낸

스토리 라인을 대비 연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sup>3)</sup> 그러므로, <인연발현조집-인연발생-인연확인조집-인연확인-재회소망>의 다섯 단계로 조직된 플롯라인의 시간배열 상황을 <인연발생-인연발현조집-인연확인조집-인연확인-재회소망>의 순서로 환원된 스토리의 시간배열 방식과 대비시켜 보면, 비교적 정확하게 숨은 기법들이 떠오른다. 이 작품 속에서 발견된 중요한 기법들은 시간착오, 액자, 패턴, 시점의 혼용, 시적 이미지의 활용, 거리화, 공간이동, 복선, 객관적 상관물, 두 인연 공간의 대화적 관계, 다양한 모티프의 활용 등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미적 기법과 장치를 통해 어떻게 의미와 상징을 창조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 Ⅲ. 인연담의 서사전략과 기법미학

#### 1. 내부액자의 원리

일반적으로 액자소설은 이야기 속에 하나 이상의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는 형태로 조직된다. 이때 삽입된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內話)’의 층을 이루고, 그 삽입된 내부 이야기를 내포하는 ‘바깥 이야기(外話)’는 액자의 층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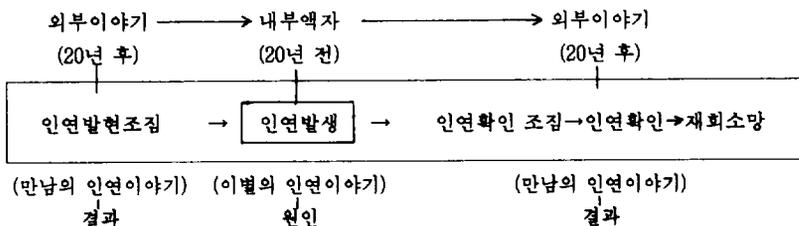
액자소설은 이런 형태적인 특성 외에도 의미론적인 차원에서의 종속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테면, 내부 이야기의 의미를 외부 이야기인 액자에 종속시켜 수렴하는 방법으로 주제를 형상화 한다. 그러므로 액자소설의 의미생성 방식은 내부 이야기가 액자의 의미공간을 통과하면서 주제의 세계로 수렴되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3) 플롯과 스토리의 대비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체사레 세그레의 논문, “설화분석, 설화논리 및 시간”(pp. 69-72)에 모범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논문은 <김병욱 편, 현대소설의 이론, 최상규 역(대방출판사, 1983), pp. 167-170.>에서 취하였다.

그러나 액자소설을 판별해 내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학자들마다 액자 판별법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식별의 원리는 역시 이야기의 분량과 의미의 내포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액자는 흔히 그 분량이 내포된 이야기보다 짧거나 적은 것이 보통이다. 다른 하나는 주제의 수렴방법을 보는 것이다. 앞서의 언급처럼, 액자는 그 분량이 적고 짧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차원에서는 분량이 많은 내부 이야기를 수렴시켜 주제로 완성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4)</sup>

이 소설 속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하나는 20년 전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가 물방앗간에서 통정을 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20년 후 허생원이 우연스레 혈육의 인연을 찾게 되는 이야기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전자는 '이별의 인연 이야기'로서 내부액자라고 한다면, 후자는 그 내부액자를 포용하고 있는 '만남의 인연 이야기'로서 외부 이야기이다. 그리하여 소설의 갈등구조는 외부 이야기의 욕망구조 속에 내포된 문제를 내부액자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 해결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sup>5)</sup> 외부 이야기의 욕망구조 속에 포함된 문제란 다름아닌, 허생원이 20년 동안 성서방네 처녀를 기다리며 간직해온 재회에의 소망과 동이가 어머니를 위해 생부를 만나고자 하는 꿈이다.

- 
- 4) 이러한 식별기준에 대해서는 김천해도 『소설구조의 이론』(문학과 지성사, 1990), pp.167-170.에서 밝힌 바 있지만, 필자는 액자가 최종적인 의미 수렴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에피소드와 구별될 수 있다고 본다.
- 5)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와 하룻밤 통정을 한 20년 전의 사건에 대한 고백 부분을 삽화로 볼 것이냐 액자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단순한 보조적 줄거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허생원과 동이의 운명적 만남의 필연성을 증명해주는 원인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만남의 결과를 과거의 원인(인연)에 종속시켜서 인연담을 구성할 때 완결된 해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액자로 본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내부액자는 허생원의 숙명적인 이별과 만남의 문제를 인연의 논리를 이용하여 설명하기 위한 서사적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 두 '인연 이야기'는 얼핏 보기와는 달리 작품 속에서 매우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재의 결과를 과거의 원인에 수렴시켜 그 필연의 논리를 설명하는 특이한 담론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본래 因緣이란 현재의 결과를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아 설명하는 운명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연담은 일종의 환원론적 설명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액자구조의 섬세함은 이야기의 전개방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를테면, 액자 이야기가 <발단→전개→절정→결말>의 순서로 나름대로의 완결된 전개구조를 내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 소설의 전체 구조 또한 <발단부(인연발현조집)→전개부(인연발생+인연확인조집)→절정부(인연확인)→결말부(재회소망)>의 순서로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견 소설의 두 구조 층위에서 발견되는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기실은 작가가 인연의 필연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장치해 놓은 구조미학상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인연성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액자에 특수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액자의 이야기를 외부 이야기의 층 속에 박아넣어 형태적으로는 외부 이야기가 내부액자를 포용하는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의미구조의 차원에서는 내부액자가 외부 이야기의 의미를 수렴하여 주제를 완성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장들뱅이 허생원이 신세타령처럼 밤길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환기하는 내부액자 부분은 그의 갈급한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처럼 기능한다.

따라서 의미해석의 차원에서도 이 소설은 액자소설의 의미수렴체계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럴 경우, 액자구조가 만들어 내는 의미구조는 허생원과 동이의 숙명적인 만남의 의미를 20년전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와의 이별의 인연담과 인과적으로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상황인 허생원과 동이의 만남의 결과를 과거 인연의 구조로부터 그 원인과 뿌리를 찾아내어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동양적인 운명관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인연담이 되는 셈이다. 이제, 그러한 동양의 전통사상을 작품의 주제로 형상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기법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이다.

## 2. 시간착오의 미학

일반적으로, 시간착오기법<sup>6)</sup>은 서사체의 미적 서술전략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된다. 이 시간연구 방법은 원리의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액자기법 자체가 시간착오의 핵심원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두 가지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이 소설 속에는 스토리의 순서를 소급해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는 逆轉기법(약 9회 정도)이 가장 현저하게 발견된다. 그 중에서 허생원이 장들뱅이가 된 사연과 허생원이 성가네 처녀를 어떻게 만나서 헤어지게 되었는지를 들려주는 내부액자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이다. 기법적으로 말하면 액자소설은 일종의 廻及提示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전기법은 주인공 허생원이 과거에 맺어진 인연을 다시 찾기 위한

---

6) 시간착오기법은 그 과학적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시간착오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의 시간과 서술의 시간 사이의 격차와 일탈 등을 변형과 변용의 관점에서 대비연구하는 것이지만, 대비의 기준이 되는 스토리의 시간(원형)을 정확하게 환원시켜 산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따라서 順序의 차원에서는 대비연구가 엄밀하게 이루어 질 수 있지만, 持續과 頻度の 차원에서는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미적 전략과 맞물려 있다. 다시 말하면, 지난 20년 전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재회를 갈망하는 주인공 허생원의 심리구조를 환기시켜 주기 위한 기법이란 뜻이다. 특히, 허생원의 마음 속에는 과거의 인연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욕망이 회한의 정으로 맺혀있다. 그러기에 그는 20년 전의 추억이 서려있는 봉평장을 뜨지 못하고 장돌뱅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이 소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시간착오는 持續의 기법이다. 지속의 유형 중에서도 정지와 장면, 생략과 요약 등이 두루 쓰이고 있다. 이러한 지속의 기법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활용된다. 하나는 서술의 속도를 조절하여 이별의 인연과 만남의 인연을 운명의 힘에 의해 연결시켜 주기 위한 고려이며, 다른 하나는 메밀꽃이 핀 달밤의 특수상황을 효과적으로 연출하여 새로운 인연이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대화의 기법도 같은 목적 하에 유기적으로 활용된다. 하나는 중요한 서사적 사건의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당사자의 입을 통해 신뢰성있게 직접 제공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스토리의 시간과 서술의 시간이 비슷한 대화의 상황을 문답의 패턴으로 연출하여 사건 자체에 리얼리티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답식의 대화 사용은 앞에서의 언급처럼 특수한 인연의 상황을 독특한 서정적 분위기에 실어서 보여주기 위한 어조와 정조를 만들어 내는 데에도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세번째로는 빈도의 문제이다. 빈도는 흔히, 스토리 라인에서 사건과 행동이 발생한 횟수와 그것을 문학적으로 변형시켜 들려주는 담화에서의 횟수를 비교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작품에서 빈도의 미학으로 꼭 언급해야 할 부분은 첫째, 허생원이 조선달에게 액자의 추억담을 들려주는 횟수를 작가(서술자)가 설명하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 허생원은 20년 전에 단 한번 체험한 하룻밤의 추억을 조선달이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들려준 것으로 요약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두번째는 허생원이 봉평장을 떠나지 않고 20년 동안 드나든 횟수를 서술자가 언급한 대목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분명 여러 번 발생한 사건을 한 번의 서술로 요약하여 들려주는 일종의 유추반복 서술의 기법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런 유추반복 서술을 선택하여 진술했을까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허생원이 20년 전에 체험한 통정사건(추억담)이 잊혀지지 않는 情恨으로 맺혀있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재회의 소망으로 간직되어 있음을 보여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작가는 그러한 서술방식을 통해서 인연의 끈질긴 힘과 주인공의 세계관(운명관)을 상징적으로 제시하여 인연담을 구축하기 위한 개연적 조건으로 삼고 있다.

### 3. 인연 공간의 대화성

이 소설은 因緣 발생의 필연성과 끈질긴 힘을 암시하기 위하여 액자의 발생 배경(이별의 인연공간)과 외화의 발생배경(만남의 인연공간)을 거의 일치시키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는 기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20년의 거리를 두고 있는 두 인연발생의 時空을 닮은 꼴로 처리한 것은 허생원과 동이의 만남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연에 의한 것임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종의 미적 장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설정은 신비로운 어떤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인연의 힘이 다시 발생하도록 개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과도 무관하지 않다.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의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날도 보름달이 뜬 밤이었고, 허생원이 동이를 만나 혈연관계를 암시받는 날도 보름 무렵의 어느 여름 밤이다.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가 만나 하룻밤의 通情을 한 것과 20년 후 허생원이 동이를 만나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사건도 메밀꽃이 핀 달밤에 벌어진다. 그리고 20년 전의 인연이 발생한 시간과 20년 후의 만남의 인연이 발생한 것도 봉평장날 밤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물론, 20년 전의 통정사건이 물방앗간에서 발생한데 비해 20년 후의 혈연해후의 사건은 개울에서 이루어졌고, 만남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점에서는 다소 차이성을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공간설정에 있어서 20년의 시간적 거리가 있으면서도 과거와 현재의 인연 발생 공간을 거의 유사하게 설정한 것은 그들의 만남이 어떤 필연적인 힘에 의해 이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인연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삶

의 질서 속에서 대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sup>7)</sup>

#### 4. 인연 확인의 패턴

##### 가. 질문과 응답의 패턴

이 소설은 인연성의 확인을 위해 허생원과 동이가 이른바 질문과 응답의 문답 패턴<sup>8)</sup>에 의해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태를 보여준다. 게다가 이따금 작가가 논평적 서술자로 끼어들어 상황을 부연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질문과 응답의 패턴 속에서 세 사람의 화자들은 공동의 서술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허생원과 동이는 구체적인 문답형식을 통해서 인연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전지적 서술자는 관찰자적이며 논평적인 어조로 반복적으로 끼어들면서 상황에 대한 보충설명과 함께 인연발생을 추구하는 노력을 한다.

##### 나. 인연의 패턴

인생에서 인연이란 돌고 도는 어떤 순환적인 만남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별과 만남의 상황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필연적인 삶의 양식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인연을 패턴으로 설명할 때 그 인연을 보여주는 삶의 논리는 역시 이별과 만남, 혹은 슬픔과 기쁨 등의 반복성에서 찾아야 한다. 이 소설의 구조 또한 20년을 주기로 이별의 인연과 만남의 인연이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형태로 이야기가 발전한다. 그 반복되는 인연을 믿고 마음조리며 반평생을 살아온 허생원의 기다림의 미학 속에 전통적인 삶의 법칙이 내재해 있다.

---

7) 필자가 이 소설에서 20년 前과 後의 인연발생 공간이 대화적 관계에 놓여있다고 말하는 것은 20년의 시공적 거리 속에서도 공간 배경상의 유사성과 일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배경의 일치와 유사성은 결국 인연의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미적 전략이다.

8) 제럴드 프린스는 그의 『서사론사전』(이기우, 김용재역, 민지사, 1992)에서 패턴을 “(이야기 되는 상황, 사건)의 의미있는 반복적 배열”로 정의한다.

#### 다. 인연담의 환기 패턴

이 소설에서 허생원은 20년 동안 장돌뱅이를 계속하면서 봉평장을 오간다. 그리고 그 때마다 그 날밤의 기막힌 추억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며 밤길을 가는 생활을 지속한다. 이러한 허생원의 욕망 속에는 비록 하룻밤의 통정으로 끝난 과거의 인연이지만, 다시 되돌리고 싶어하는 情恨이 숨어있다. 그러한 허생원의 꿈이 20년 동안 봉평장을 떠돌게 만든다.

따라서 허생원은 과거의 슬픈 인연을 가슴에 안고 재회의 인연을 꿈꾸며 우직하게 살아가는 평면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근거는 허생원 자신이 고백하는 액자 이야기 중 그 날밤의 기이한 만남을 팔자로 돌리는 데서도 확인된다.

“「-----거기서 난데 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팔자에 있었나부지.」”<sup>9)</sup>(밑줄-필자)

#### 5. 객관적 상관물

이 소설 속에서 늙은 당나귀는 허생원이 처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환기시켜 주는 상관물로 묘사된다.<sup>10)</sup> 나귀는 그와 반평생을 함께 지내온 유일한 동반자로서 그의 분신처럼 그려져 있다. 그래서 소설의 발단부에서는 나귀가 암새를 내는 性的인 상황을 허생원이 동이와 충주집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모습으로 비유되고, 종결부에서는 허생원이 아들과 만나게 된 상황을 그의 당나귀가 새끼를 얻은 모습으로 암시되고 있다.

#### 6. 물방앗간과 개울 이미지

물방아가 돌고 도는 세월의 흐름과 인생유전을 상징한다면, 그것은 곧 행복

9) 유종호, op. cit., p. 36.

10) T. S. 엘리엇는 “햄릿과 그의 문제들”이란 에세이에서, 객관적 상관물을 “어떤 특별한 정서를 나타낼 공식이 되는 한 때의 사물, 정황, 일련의 사건으로서, 바로 그 정서를 곧장 환기시키도록 제시된 외부적 사실”로 정의하였다.

과 불행, 이별과 만남 등이 순환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그 순환의 상징 공간이자 매체인 물방앗간에서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의 통정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물방앗간은 이미 특수한 인연을 발생시키기 위한 상징공간이 된다.

물방앗간이 갖는 또 하나의 상징성은 물의 이미지에서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물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속성은 곧 창조와 생성의 근원적 에너지로서의 이미지이다. 그러기에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가 물가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은 결과로서 동이가 출생했고 그는 그 인연의 뿌리로서 존재한다.

개울의 이미지 또한 같은 물질적 상상력의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개울에 빠져 물에 떠내려 가는 허생원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물의 생성적 이미지는 두 사람을 하나의 인연관계로 맺어주는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혈연의 발견과 함께 새로운 만남의 인연을 회복하게 된다.

## 7. 공간이동의 상징성

이 소설의 외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공간의 변화는 작품의 주제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봉평장→산길→고개길→큰길→개울→별판>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동의 상황을 주제와 관련시켜 해석하면 의미심장한 상징기능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봉평장은 허생원에게 이별의 인연을 맺도록 동기를 부여한 곳일 뿐만 아니라, 만남의 인연을 가능하게 열어주는 공간이다. 산길은 허생원이 20여년 동안 한이 서린 이별의 인연담을 동이에게 들려주는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그들이 걸어온 외롭고 고통스런 인생의 행로를 상징하고 있다. 고개길은 나이가 든 허생원에게 동이와 같은 젊은 시절을 그리워 하게 만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품게 만드는 곳이다. 그리고 개울은 허생원이 혈연을 만나고 확인하는 재생의 공간이 된다. 마지막으로 밤별판은 허생원이 동이와의 제천행을 꿈꾸면서 어두운 별판 너머로 찾아 올 밝은 내일을 소망하는 기다림과 기쁨의 상징공간이 된다. 따라서 소설 속의 공간 이동은 주제의 형성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8. 고백체와 전지적 시점의 혼용

이 소설은 특별히 바깥 이야기를 내부의 액자 이야기에 수렴시켜 인연의 문제를 설명하는 논리를 취하고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내부액자는 체험자가 1인칭 고백체의 시점으로 직접 전달하여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바깥 이야기는 문답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가족사에 얽힌 비밀을 폭로하게 하여 인연의 만남과 확인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서술자는 논평적인 전지적 시점에 서서 두사람의 거리를 좁혀가면서 만남의 인연이 가능하도록 부연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20년 전의 자신의 체험담을 고백체로 들려주는 액자 밖의 허생원은 서술자가 되지만, 액자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20년 전의 허생원은 체험의 주체이기 때문에 즈네프의 용어로는 초점화자가 된다.<sup>11)</sup> 그러니까, 이 소설은 초점화자인 젊은 시절의 허생원이 체험한 이야기를 20년 후에 늙은 허생원이 들려주는 회상풍의 이야기가 된다. 여기서 젊은 시절의 허생원과 늙은 허생원은 동일 인물로 보지 않는 것이 초점화자의 개념이다.

## 9. 복선과 유전 모티프

이 소설 속에는 두 사람의 왼손잡이가 존재한다. 하나는 도입부에서 伏線으로 처리된 허생원이고, 다른 하나는 결말부에서 그 복선에 대한 화답의 형태로 소개된 동이가 바로 그 인물이다. 이처럼 왼손잡이 모티프를 복선과 화답의 형태로 처리한 것은 유전성을 증거로 내세워서 아비와 아들의 만남을 인연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텍스트 속에서 그 용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인용문의 밑줄-필자)

"얼금뱅이요 왼손잡이인 드림전의 허생원은 기어이 동업의 조선달을 낚구어 보았다."<sup>12)</sup>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득

11) S. 리몬-케년, 소설의 시학, 최상규 역(문학과지성사, 1985), pp. 109-128.

12) 유종호, op. cit., p. 31.

신이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sup>13)</sup>

여기서 왼손잡이가 유전적인 형질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리얼리티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결함이 작품의 전체 구조에 손상을 줄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10. 정한 모티프

소설 속의 인물 허생원은 기본적으로 恨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닌 것은 하룻밤 인연을 잊지 못하고 20년 동안 그 옛 처녀와의 재회를 꿈꾸며 봉평장을 떠도는 행위가 이를 증명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그런 허생원의 고지식한 성격과 심리적 특성을 암시해주는 대목들이다.

“「——팔자에 있었나부지.」”<sup>14)</sup>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sup>15)</sup>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 인들 잊을 수 있겠나.」”<sup>16)</sup>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sup>17)</sup>

이것은 분명 무서운 집념이 한으로 서려있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恨은 극한적인 심리적 맺힘구조로서 매우 복잡한 심층심리화적인 발생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한의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아직 학계에서조차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 소설 속에서 허생원의 가슴에 쌓인 한은 자신이 스스로 쌓아올린 한이라는 점에서 情恨이나 梅恨에 가깝다. 발생론적 차원에서 정한 혹은 회한은 주

---

13) Ibid., p. 39.

14) Ibid., p. 36.

15) Ibid.

16) Ibid., pp. 36-37.

17) Ibid., p. 37.

제가 객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뒤, 뒤늦게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반성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자신의 가슴에 쌓아올리는 심리적 응어리이다. 그러므로 정한은 타의적인 한이 아니라 자의적인 생성구조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sup>18)</sup>

이 소설의 주인공 허생원 역시 자의적인 한의 생성구조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그의 가슴 속에는 20년 전 어려운 처지에 있던 성서방네 처녀를 꼬여 통정한 것에 대한 자책과 그리움이 묘한 심리적 응어리로 남아 반평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 11. 인연찾기 모티프

이 소설의 테마는 기본적으로 동양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연찾기의 담론구조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인연의 구조는 돌고 도는 순환성을 본질로 가지고 있으며, 인생의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이별과 만남의 현상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때 인연의 순환운동은 우연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연성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고 믿는 것이 인연설의 요체이다.

그러므로 인연담의 서사구조는 현재의 삶의 결과를 과거의 원인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과거지향적, 혹은 원인지향적인 해결구조를 갖게 마련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이 소설은 내부액자를 설치하여 현재의 만남의 인연을 과거의 이별의 인연을 찾아내어 통합시키는 특이한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혈연간의 만남을 인연의 힘에 의해 귀소본능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생원과 동이의 만남은 일종의 원형적 모티프로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 IV. 인연찾기의 운명적 욕망구조

이 작품 속에는 주제를 형성하는 세 개의 욕망구조가 내포되어 있다.<sup>19)</sup> 하

18) 안성수, "한의 맺힘구조와 역동적 상상력" 『제주대학교 논문집』(1988. 12), 제 27집, pp. 3-5.

19) 여기서 필자가 제기하는 욕망구조식은 르네 지라르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

나는 주인공 허생원이 액자 이야기의 고백을 통해서 성서방네 처녀와 맺어진 20년전의 괴이한 인연찾기를 보여주는 욕망형태이다. 이러한 욕망의 목표는 허생원이 반평생 동안 되뇌어온 간절한 추억담을 통해 표상되어 있다. 그리고 옛 처녀와의 재회를 꿈꾸며 죽을 때까지 장돌뱅이로서 봉평장을 맴돌겠다는 의지의 표현 속에 그의 견고한 욕망의 실체가 내재해 있다. 허생원의 이러한 욕망은 그의 단순하고 고집스런 평면적인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그 보다는 옛 여인에 대한 그리움과 자책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의 욕망구조는 동이가 가족사의 고백을 통해서 2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의 인연찾기를 돕고자 하는 욕망형태이다. 이러한 근거는 동이가 허생원과 주고 받는 문답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대화가 그러한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자나 깨나 어머니 생각뿐인걸요.」

……(중략)……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붙이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중략)……

「그래 모친은 아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아버찾기의 모티프는 이미 삼국사기의 <동명왕편> 주몽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대체로 운명론적인 힘에 의존하고 있다는 데 그 특성이 있다. 그러한 운명적인 힘이 이 소설 속에서는 다름아닌 인연으로 나타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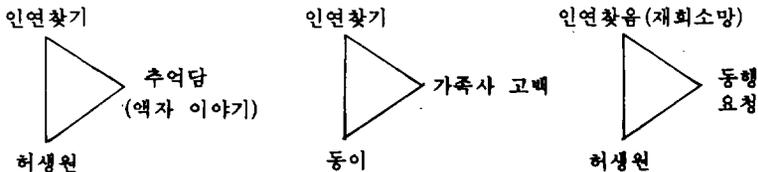
를 보인다. 지라르는 중개자를 주체가 꿈꾸는 불가능한 욕망목표의 간접적인 모방 대상으로 설정한 데 비하여, 필자는 주체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맺은 모든 중요한 대상을 중개자의 개념 속에 포함시킨다. 이럴 경우, 욕망구조식은 <누가(S) 무엇이 도움으로(M) 어떤 목표(O)를 수행하려고 하는가>라는 보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대된다.

20) 유종호, op. cit., pp. 37-39.

세번째의 욕망형태는 허생원이 동이의 가족사에 관한 고백을 들으면서 내면적으로 자신과 동이가 부자관계임을 확인하고는 동이의 모친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망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은 허생원이 동이에게 던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 속에 숨어있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헐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의 성은 무엇이구?」  
 ……(중략)……  
 「그래 모친은 아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제신가?」  
 ……(중략)……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sup>21)</sup>

지금까지 언급한 욕망구조를 그림으로 도형화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에서 첫번째와 두번째의 욕망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나 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다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sup>22)</sup>라는 중얼거림이 그 근거가 된다. 이것은 허생원이 아들을 만난 것을 나귀가 새끼를 얻은 것에 비유하여 은밀하게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세번째의 욕망추구 결과 또한 독자들이 상상력으로 채워할 부분이지만 역시 달성 가능한 것으로 암시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욕망구조들이 어떻게 주제의 세계로 통합되어 형상화 되었는지

21) Ibid., pp. 38-39.

22) Ibid., p. 39.

를 문학적 상상력의 작용방식을 통해 살펴볼 차례이다.

## V. 인연의 힘과 상상력의 작용

소설 텍스트 속에서 문학적 상상력의 작용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힘든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것은 상상력의 활동이야말로 작품의 구조와 주제의 형상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검증방식이기 때문이다.

소설의 구조 속에서 발견되는 문학적 상상력의 체계는 물질적 상상력과 변증법적 상상력, 역동적 상상력, 그리고 원형적 상상력 등이 유기적으로 만들어 내는 미적 창조의 핵심원리이다. 이러한 상상력의 체계는 필자가 가스통 바슐라르의 세 가지 상상력의 작용체계<sup>23)</sup>에 변증법적 상상력의 작용을 첨가시킨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증법적 상상력은 작중인물로 하여금 자기의 삶과 행동을 반성과 성찰을 통해 되돌아 보고 바람직한 세계로 이끌어 주는 동력을 생성해 내는 힘이다. 소설이란 것도 사실은, 현재의 삶을 통하여 과거를 되돌아 보고 미래의 삶을 꿈꾸는 변증법적이고 역동적인 욕망의 표출형식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소설의 형상화 과정에서 변증법적 상상력은 물질적 상상력과 역동적 상상력의 중간 단계에서 미지를 향한 탐색의 힘을 분출케 하는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우선, 물질적 상상력은 소설의 도입부나 발단부에서 발견되는 소재나 제재가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나 상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설의 도입부와 발단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여주게 될 행동이나 사건에 대한 암시적 의미가 주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도입부의 제재가 내포한 암시적 의미

---

23) 바슐라르의 문학적 상상력의 작용원리와 체계에 대해서는 광광수와 김현의 공저인 「바슐라르 연구」(민음사, 1976) 중 "바슐라르와 상상력의 미학" 부분과 광광수의 「가스통 바슐라르」(민음사, 1995)에 전적으로 힘입고 있음을 밝혀둔다.

나 상징성 속에서 물질적 상상력의 정체를 만날 수 있다. 이때, 상상력이 내뿜는 물질성의 본질은 대상(제재)을 이루는 물, 불, 흙, 공기 등의 4원소의 작용에 의하여 연상된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 상상력은 소설이 진전되면서 새롭게 만나는 새로운 사건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필요한 이미지를 추가시키기도 한다.

「메밀꽃 필 무렵」의 도입부는 인연이 발현될 조짐을 보여주는 곳이다. 따라서 여기서 발견되는 물질성의 정체는 '여름 장'과 총주대를 놓고 벌이는 동이와 허생원 간의 성적인 갈등, 그리고 암샘을 내는 허생원의 당나귀 등이 내뿜는 상황적 이미지와 관계가 있다.

시골場은 우선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 지는 곳으로서 미래의 재회 가능성을 암시하는 공간이다. 뜨거운 여름 장터가 내포하고 있는 공간적, 시간적 이미지는 어떤 만남의 상황을 가능하게 열어주는 4원소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 장터에서(흙 이미지) 만나는 사람들은 함께 술을 마실 수도 있고(물의 이미지),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을 만날 수도 있으며(공기의 이미지), 여름 장의 뜨거운 열기(불의 이미지) 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따라서 여름 장터란 어떤 새로운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 에너지로 가득찬 공간이 된다.

그러므로, 도입부의 공간으로 설정된 시골장의 이미지는 장차 이루어 지게 될 어떤 만남의 의미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총주대를 놓고 벌이는 동이와 허생원의 갈등 상황 또한 그들이 장차 소설 속에서 생성될 어떤 만남의 사건과 긴밀히 관계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만남의 이미지들이 보여주는 보편적인 의미는 창조성에서 찾을 수 있고, 그러한 창조성은 작품 속에서 허생원과 동이가 혈연으로서 만나게 되는 인연 이야기로 구체화된다. 허생원과 반평생 동안 회노애락을 같이 해온 당나귀가 장터에 가까이 왔을 때 우는 힘찬 울음소리는 늘 허생원의 가슴에 새로운 만남을 갈망하는 희망의 소리, 기원의 소리에 가깝다.

그러나 도입부보다 한층 밀도있는 물질적 상상력이 생성되는 곳은 액자의 이야기 공간이다. 액자의 공간은 바로 과거의 인연이 발생한 곳이다. 액자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발견되는 달밤, 산길, 달의 숨소리, 소금뿌린 듯한 메밀

꽃, 시원스런 방울소리 등은 깊은 관능성과 농밀한 서정적 이미지를 풍겨주는 제재들이다. 이러한 시적 배경이 갖는 또하나의 의미는 그것이 20년 전에 발생한 액자의 공간배경과 거의 일치하거나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설정은 결국, 감정이입의 효과를 통해서 액자 이야기 속으로 작중 인물과 독자들을 빨아들이려는 의도와 인연생성의 창조성을 신비스런 분위기 속에서 연출하기 위한 미적 배려로 보인다.

이어서 액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무더위, 개울가, 물방앗간, 울고 있는 처녀, 성관계 등의 제재를 통해서 구체적인 만남과 이별의 인연이 창조된다. 예컨대, 무더위는 뜨거운 창조적 에너지로서의 불과 공기의 이미지와 관계된다면, 개울가와 처녀의 울음 등에서는 물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그리고,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가 갖는 성관계(몽정)는 물, 공기, 불, 흙의 이미지와 모두 결부되므로서 창조적 에너지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러한 창조적 에너지가 결국 이들의 인연을 맺어주고 동이를 낳게 되는 뿌리가 된다.

바깥 이야기의 층위로 나오면, 물질적 이미지는 허생원과 동이가 밤길을 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길의 상징성과 만나면서 한층 충밀하게 흐른다. 장→산길→고갯길→큰 길→개울→밤벌판 등으로 흐르는 공간은 한결같이 창조적 에너지의 생성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길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달빛의 열기와 공기의 흐름과 물의 이미지를 고루 흡수함으로써 창조적 에너지로서의 작용이 가능해진다. 여기서의 밤길은 기본적으로 허생원이 걸어온 어두운 인생을 상징하고, 장터로부터 산길, 고갯길, 개울, 밤벌판으로 이어지는 공간 이동은 점차 넓은 공간으로 이동되면서 작중인물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물의 이미지는 창조적 에너지의 한 요소로서 액자 속에서는 성관계를 통해서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와의 인연을 맺어주고, 결말부에서는 개울에 빠진 허생원을 동이가 구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남의 인연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끝으로, 광활한 밤벌판에 울려퍼지는 나귀의 방울소리는 역시 어둠이 걷히고 찾아올 밝은 내일을 암시하는 희망의 소리로서 울림을 형성한다.

물질적 상상력은 이렇게 소설의 전 공간에서 충실하게 흘러넘치고 있으며, 이야기의 발전단계에서 중핵적인 사건들과 만나면서 만남의 인연을 생성하는데 기여한다.

다음으로는 변증법적 상상력의 작용을 살펴볼 차례이다. 이 상상력의 힘은 주인공이 도입부와 발단부에서 분출된 물질성의 이미지를 자신의 과거 삶(통정사건)과 연결시키면서 발생하기 시작한다. 허생원이 장을 파시한 뒤 밤길을 가면서, 20년 전의 사건을 동이와 함께 주고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성적 성찰의 의미가 내재해 있다. 하룻밤의 통정사건을 잊지 못하고 20여년을 장돌뱅이로 떠도는 허생원의 심리구조 속에는 그리움과 자책감이 동시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허생원의 심리구조 속에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만남의 인연을 통해 과거의 인연이 생성해 놓은 죄책감을 씻어내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창조하려는 변증법적 의도가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허생원의 욕망은 결국 동이와의 뜻밖의 문답을 통해서 역동성을 일으키는 힘으로 축적된다.

역동적 상상력은 변증법적 성찰의 차원에서 축적된 에너지를 미지의 세계를 향해 투사하는 힘이다. 문학 텍스트에서 역동적 상상력은 흔히 반전이나 발견의 순간에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분출되는 존재담구의 힘으로 작용한다. 이 작품 속에서는 허생원이 동이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묻다가 발견의 충격으로 개울에 빠져 구출된 뒤, 동이에게 제천행의 동행을 요청하는 대목에서 분출된다. 그 순간 허생원은 새로운 세계로의 행복한 여행을 꿈꾼다. 그 꿈 속에는 20년 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옛 여인과의 재회가 기다리고 있고, 과거의 인연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욕망하는 힘이 내재해 있다. 그것은 분명 밤벌판에 청청하게 울려 퍼지는 나귀의 방울소리처럼 이전보다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사무치게 그리운 미지의 세계이다. 결말에서 허생원이 동이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것은 뜻밖의 인연을 확인한 뒤 반전과 발견의 충격 속에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 욕망을 투사하는 장면이다. 이것이 역동적 상상력의 정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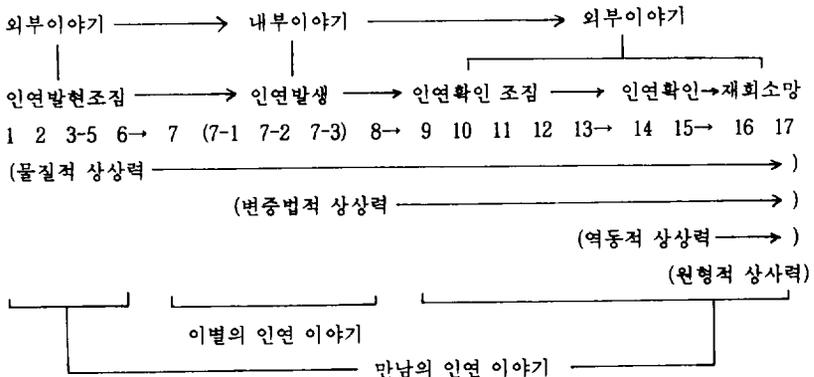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원형적 상상력은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내뿜기 시작한 역

동적인 힘이 작중인물이나 독자로 하여금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가치의 세계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힘이다. 그러므로 원형적 상상력의 정체는 기본적으로 작가가 찾아내고 해석해 낸 보편적인 가치와 의미의 공간에서 인식의 힘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다.

물론 이 소설의 서사적 진술 속에서는 작중인물이 보편적인 가치의 세계를 자각했거나 인식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주인공 허생원의 삶의 논리 속에는 성서방네 처녀와 하룻밤의 만남에서 비롯된 이별의 아픔을 팔자로 생각하고, 새로운 만남의 인연을 위해 20년을 기다리는 행위 속에 인연의 힘을 증시하는 운명관이 내재해 있다. 독자들은 그러한 허생원의 행동과 운명관을 통해서 동양적 가치관이 주제의 세계로 형상화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만남과 이별이란 인연의 힘에 의해 이끌리는 신비로운 삶의 현상이자 논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룻밤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도 필연이요, 또 헤어졌다가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도 필연적인 운명의 힘이라고 믿는 작가의 세계관 속에 바로 원형적 상상력의 실체가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지금까지의 상상력의 작용방식을 이야기의 플롯체제도와 연계시켜서 도형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물질적 상상력, 변증법적 상상력, 역동적 상상력, 원형적 상상력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여 보편적 가치의 세계를 상상력의 궁극성으로 생성시키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이별과 만남 사이의 운명적 거리(갈등구조)를 인연의 힘을 빌어 통합시켜 주는 구조의 힘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별의 인연은 20년 전의 하룻밤의 체험과 관계되고 만남의 인연도 20년 후의 하룻밤의 체험과 관계된다. 그 사이에 운명의 힘을 믿고 따르는 오랜 기다림의 미학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서 과거의 체험과 현재의 체험은 상호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거리와 의미론적 대립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전자는 불행한 비극적인 인연의 생성공간이요, 후자는 행복한 인연의 생성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주제생성 방식을 그레마스의 방식<sup>24)</sup>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별의 인연은 20년 후의 행복한 체험(만남)과 모순되지만 운명의 힘에 의해 만남의 인연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만남의 인연은 20년 전의 체험(이별)과 모순되지만 그 또한 운명의 힘의 작용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면, 이 소설의 의미구조는 운명(인연)의 힘이 중재자가 되어 이별과 만남의 인연을 만들어 내는 삶의 공간 속에 걸쳐있게 된다. 아울러서 인생이란 하나의 거대한 운명의 공간 속에서 만남과 이별, 슬픔과 행복 등이 인연의 힘에 의해 필연적으로 교차. 반복되면서 채워지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이 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동양적 운명론, 혹은 인연론의 핵심논리인 것이다.

그밖에도, 이러한 운명론은 역사현실에 대한 풍자적 관점에서, 당시의 민족적 운명을 암시하는 논리로도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 작품이 1930년대에 발표된 것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논리는 한층 개연성을 획득할 수 있다. 예컨대 일제 식민통치에 의해 강요된 민족이나 조국과의 이별의 상황도 언젠가는 다시

---

24) Terence Hawkes(ed.), Structuralism and Semiotics (Methuen & Co Ltd, 1977), p. 87.

만남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VI. 결 론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1. 이 소설의 구조적인 특성은 내부액자 소설의 형태에서 발견된다. 내부액은 外話 가운데에 액자를 삽입하는 형태로서 전도된 의미 수렴방식의 특성을 보여준다. 즉, 외화가 내부액자의 이야기에 종속되면서 그 주제의 의미가 수렴되고 해석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2. 작가가 내부액자를 도입한 것은 인연담의 특수한 서사논리를 형상화하기 위한 전략이며 소설의 주제를 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이 소설은 내부액자 구조를 통하여 인연담을 담아내기 위하여 몇 가지 미적 기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시간착오, 공간의 대화적 설정, 유전 모티프와 인연찾기 모티프, 정한 모티프의 도입, 패턴의 사용, 물방앗간과 개울이미지, 객관적 상관물, 공간이동과 주제형성의 일치 구성, 1인칭 고백체와 전지적 시점의 혼용, 초점화자의 활용 등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여 인연찾기 액자구조의 미적 울림을 창조하고 있다.

4. 이 소설 속에는 세 가지의 형태의 욕망구조가 내재하고 있다. 하나는 허생원이 20년전의 추억담을 통해서 인연찾기를 꿈꾸는 것이요, 두번째는 동이가 가족사의 고백을 통해서 어머니를 위한 인연찾기를 꿈꾸는 형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생원과 동이가 인연의 힘을 통해서 인연찾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5. 이 소설은 인연찾기의 성공적인 결과를 결말부분에서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의 논리에 따르면 회극적 구성의 이야기로 판단된다.

6. 이 소설 속에는 물질적 상상력, 변증법적 상상력, 역동적 상상력이 충일하게 촉발되어 주인공 허생원의 심리와 행동을 이끌고 있지만, 주제론적인 차

원에서 독자들은 원형적 상상력까지 촉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연이라는 동양사상의 보편적인 가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 소설은 완성되기 때문이다.

7. 이 소설의 구조 속에는 두가지 차원의 역동적인 힘이 작용한다. 전체구조의 차원에서는, 신비로운 인연(운명)의 힘이 주인공의 이별과 만남의 사건을 지배하는 논리로 작용하지만, 부분구조의 차원에서는 허생원의 변증법적인 인식의 힘이 그러한 숙명적 인연을 기다리고 인내하도록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소설은 구조적으로 변증법적 인식논리를 운명적이고 인연적인 삶의 논리가 하부구조로 내포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그러므로 이 소설의 주제의 세계는 인연찾기의 의미공간 속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의 해석도 가능해진다. 이 소설을 발표한 시기가 1930년대임을 감안한다면, 일제 식민통치로 인한 조국이나 민족과 강요된 이별도 언젠가는 만남의 인연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곽광수. 가스통 바슐라르. 민음사, 1995.  
김병욱 편. 현대소설의 이론. 최상규 역. 대방출판사, 1983.  
김정자. 한국 근대소설의 문체론적 연구. 삼지연, 1985.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0.  
유종호 편저. 이효석. 지학사, 1985.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76.  
제럴드 프린스. 서사론사전. 이기우. 김용재 역. 민지사, 1992.  
즈네트, 제라르. 서사담론. 권택영 역. 교보문고, 1992.  
츠베탕 토도로프. 바흐진: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최현무 역. 까치, 1987.  
케년, S. 리몬. 소설의 시학. 최상규 역. 문학과지성사, 1985.

프라이, N. 비평의 해부. 임철규 역. 한길사, 1982.

안성수. "한의 맷빔구조와 역동적 상상력". 『제주대학교 논문집』27집, 1988.

Brooks C. & Warren, R.P. Understanding Fiction. Appleton-Century-Crofts. Inc., 1959.

Chatman, Seymour. Story and Discourse. Cornell Univ. Press, 1978.

Hawkes, Terence (ed). Structuralism and Semiotics. Methuen & Cop Ltd, 1977.

Todorov, Tzvetan. Poétique. Editions du Seuil, 1968.